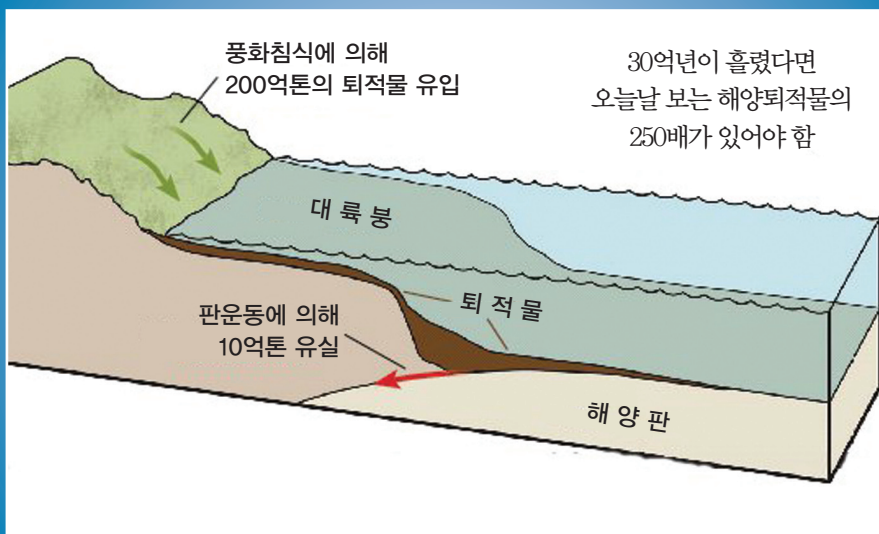




판의 이동 속도

오늘날 판구조론은 지질학적 진화론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알려졌다. 판구조론은 우리에게 흔히 알프레드 베게너 (Alfred Wegener)의 대륙이동설로 잘 알려졌는데, 과거 초대륙의 상태에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조금씩 이동해왔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과거 초대륙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화석과 지층이 연결되는 증거로 확인됐다. GPS의 발달과 해저 모습의 관찰로 인해 판이 이동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판이 움직이는 과정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중반 이후 지구물리학자들은 맨틀의 대류가 이러한 이동을 이끄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 나사 (NASA) 연구소와 함께 연구하는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은 약 2000여 개의 GPS로 오늘날 판의 이동 정보를 분석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동아시아

혹자들은 지구가 오래되었는지, 성경대로 약 6000년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잘못된 것이다. 역사가 진행됐다면 그의 흔적은 분명 남게 되기 마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신 일들의 흔적을 땅에 남겨 놓으셨다.



연안 태평양판의 움직임이 약 한 해에 7.5cm 정도로 가장 빠른 것으로 파악된다.¹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적 지질학의 해석(동일과정설)에 기초해 이러한 판의 이동은 과거 언제나 같은 속도였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거꾸로 이동해 온 거리를 속도로 나누어 지구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믿음에 맞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언제나 판의 이동속도가 오늘날과 같았을까? 맨틀의 대류가 과거부터 언제나 오늘날과 같은 속도로 일어났을까?

지구 맨틀은 액체가 아닌 고체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체 암석일지라도 그 성질이 지구 표면과 달라진다. 대개 고체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맨틀의 경우에는 이러한 높은 압력과 열 때문에 영구적 변형이 (inelastic deformation) 쉽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대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대개 점도가 높은 액체의 이동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맨틀의 대류와 움직임은 점도 (viscosity)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 더 자세히 말하면, 점도가 약간만 낮아도 맨틀이 지구 내부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지구 맨틀의 점도는 약 10^{22} Pa-s 정도로 생각되는데, 만약 맨틀로 섭입되는 판의 밀도가 높아서(온도가 낮아지면 밀도는 높아진다) 높은 중력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면, 판이 맨틀 안으로 가라앉으면서 만들어지는 열에너지가 맨틀의 점도를 크게 낮추게 된다. 수학적 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는 약 10^{13} Pa-s 정도까지 낮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² 맨틀이 이동, 변형하면서 생기는 열은 점도를 낮추는데 매우 직접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맨틀 시뮬레이션의 결과 뿐 아니라 실험결과에서도 관찰된다.³ 또한 여러 연구의 결과들은 과거 지구 맨틀 내부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로 생성되는 열의 양이 현재보다 많았음에 동의한다.⁴ 그리고 무엇보다 맨틀 바닥의 온도가 약 3,500도 정도이기 때문에 지구 표면과 맨틀 바닥의 온도 차이가 맨틀 대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실제 조건들을 고려하고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음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판의 이동속도가 약 초당 2~3m까지 빨라질 수 있고 그러므로 오늘날의 모습까지 이동하는 데 약 1년 정도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그림1 참조).²

과거 판의 움직임이 매우 빨랐을 것이라는 주장은 단지 이론에만 그치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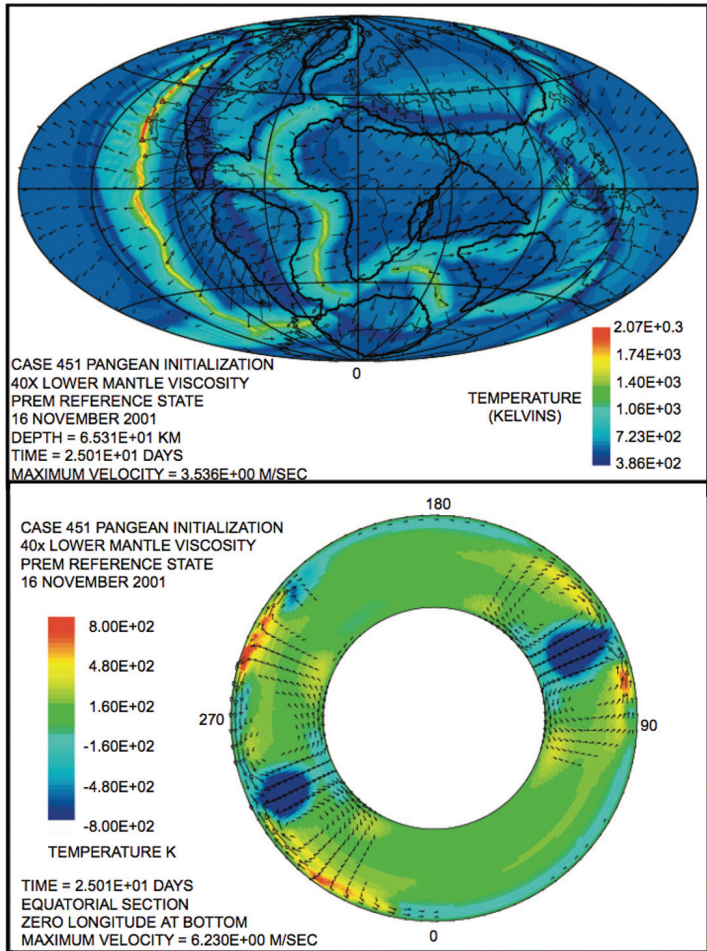


그림 1 TERRA3D (맨틀대류를 위한 유한요소법 모델)를 이용한 노아 홍수 기간의 맨틀 대류 모델. 첫 번째 그림에서 붉은 선은 판게아에서 조개져 이동하는 판들을 나타낸다. 벌어지고 있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 대서양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판게아로부터 이 상태까지 이동하는데 약 25일정도 걸렸고 최대 속도가 초당 약 3.5m 에 다다른다. 두번째 그림은 지구의 적도를 따라 나눈 맨틀의 단면도를 나타내는데 차가운 맨틀이 (파란색) 가라앉고 바닥으로부터 뜨거운 맨틀이 (빨간색) 부력에 의해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최대속도는 초당 약 6m로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다. 노아 홍수 동안의 이러한 격변적인 판의 이동은 오늘날 양의 모습을 쉽게 설명하는데 반해, 진화론적 이론은 모순을 보여줄 뿐이다.²

다. 오늘날의 해양 바닥의 지질 구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오늘날 해양판은 전체 지구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현재 해양판의 지질 구도를 보면 퇴적층은 500m에서 5km정도 두께로 분포하는데, 해양판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심해평원에서는 500m 이하에 불과하다.⁵ 이러한 퇴적물도 해안가 주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점토와 미생물에 의한 퇴적층으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대륙의 퇴적물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것 아닌가? 만약 판의 이동이 지금처럼 매우 느렸다면, 해양 바닥은 육지의 퇴적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이러

한 점에 착안하여 한 창조과학자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퇴적물의 양을 계산해서 비교해보았는데, 만일 판이 느리게 이동했다면 오늘날의 해양 퇴적물보다 너무 많은 수치이다.⁶ 다시 말해, 현재 해양 바닥의 매우 부족한 퇴적물은 판이 과거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해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전 지구적으로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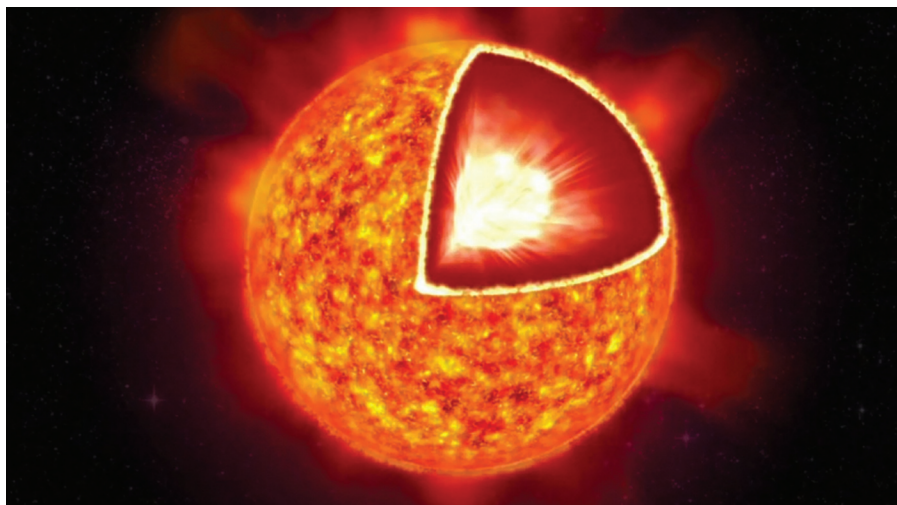
혹자들은 지구가 오래되었는지, 성경대로 약 6000년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잘못된 것이다. 역사가 진행됐다면 그의 흔적은 분명 남게 되기 마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신 일들의 흔적을 땅에 남겨 놓으셨다. 이것이 땅의 역사이고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뒷받침해준다. 오늘날 발견되는 많은 증거는 여러 잘못된 가정들을 교정하고 다시 보면 짧은 연대를 보여준다. 해양판의 퇴적물의 양과 모습도 이러한 증거 중 하나이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잠 8:29-30). 예수님은 땅의 역사 가운데 계신 증인이다. 그분의 증언인 말씀대로 이 땅은 지나왔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증거들을 남겨두셨고 우리는 그 증거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친절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완전한 진리인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신다.

참고문헌

1. Jet Propulsion Laboratory website, <http://sideshow.jpl.nasa.gov/post/series.html>
2. J.R. Baumgardener, 2003, Catastrophic plate tectonics: The physics behind the Genesis Flood, in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onism, R.L.Ivey, Jr. ed., Pittsburgh, PA: Creation Science Fellowship, 113-126
3. I.J. Gruntfest, 1963, Thermal feedback in liquid flow; plane shear at constant stress, Transactions of the Society for Rheology, 8, 195-207
4. C.M.R. Fowler, 2005, The solid earth: An introduction to global geophys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69-325
5. S.Boggs, 2011, Principles of sedimentology and stratigraphy, Prentice hall, 294-305
6. S.E. Nevins, 1973, Evolution: The oceans say no!, Acts & Facts (<https://www.icr.org/article/56>)

조희천 / 지구물리학 박사과정,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한동대학교 생명식품과학부를 졸업한 뒤 현재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 (Mississippi State University)의 Computational Engineering에서 지구 물리학 (Computational Geophysics)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는 삼차원 맨틀 대류 모델을 위한 유한요소법 코드인 TERRA3D를 더 정확한 모델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으로 물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위해, 특별히 창조과학자로의 부르심을 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먼저 빛이 있어야 합니다!

물리학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빛을 다룬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 하였지만 물질이 무엇인지 또 빛이 무엇인지 그 근원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엄청난 비용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 신비는 더욱 증폭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창조 첫날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빛의 창조를 선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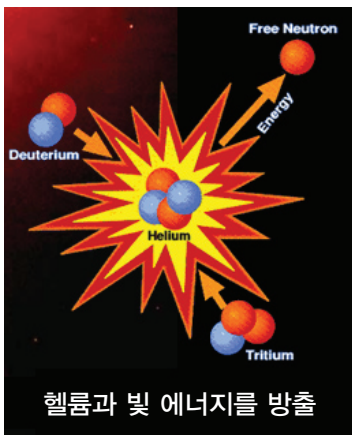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1:1)”

성경의 창세기1장의 창조를 살펴보면 우선 시간(Time), 공간(Heaven), 그리고 물질(Earth)의 요소를 지으시고(창1:1) 빛이 있으라(창1:3) 하심으로 에너지의 근원 빛으로 물질세계가 활성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진토의 근원으로 시작된 물질의 조화(잠언 8:22-31)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잡한 체계로 이행되었고 드디어 우주를 형성하는 물질들로 정돈되었을 것이다. 기록된 창조의 첫날 시간, 공간, 그리고 빛과 함께 물질세계가 완성되었다(창1:1-5).

오늘날 과학자들은 태양이 빛의 근원이 아님을 잘 안다. 그리고 빛이 없이 물질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현대 물리의 핵심이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빛의 창조로 첫날을 시작하고 있다. 굳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연속체 개념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말씀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 넷째 날 태양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첫 날 빛(오르: 히브리어 고유명사로 빛 자체를 뜻함)을 만드셨다. 따라서 그 빛으로 낮과 밤이 나누어지도록 하셨다(창1:5). 그 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태양이 아직 없지만 빛이 있으므로 지구를 회전시켜서 하루가 지나고, 또 반복된 자전에 의해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되도록하셨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이르러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며 첫 날 만드신 공간을 채우셨다 (창1:14-18).



요즘 태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태양을 하나의 핵발전소로 생각하고 연구한다. 실제로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물질의 핵분열(Nuclear Fission) 반응을 조정하여 핵분열시 나오는 열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런데 태양은 중심에서 수소의 동위 원소로서 보다 무거운 수소인 중수소(Deuterium)와 삼중수소(Tritium)가 융합반응(Nuclear Fusion Reaction)으로 헬륨(He)으로 바뀌면서 전자기파인 빛 에너지와 중성자(Neutrino)를 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1]

여기서 융합반응이 이루어지려면 물질들이 상호작용을 해야한다. 그런데 물질계에서 빛 에너지가 없는 반응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빛이 먼저 존재 해야 한다. 또 태양 발전소에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결합하는 반응이 시작되려면 물질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능이 없는 물질들이 스스로 반응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안전판을 뚫고 수류탄을 던져야 폭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의지적으로 점화(Fuse)를 시켜줘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처음 가동하기 위해서 점화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다. 이는 자연주의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이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먼저 창조 첫째 날 빛을 이미 만드셨다.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마오르: 히브리어 물질명사로 빛을 내는 물체를 뜻함)이라는 발광체를 만드시고 또 기능하도록 하셨다.^[2]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설명은 매우 직설

적이며 납득이 가는 말씀이다. 여호와와 말씀은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시12:6)처럼 성경말씀은 모순이 없고 따라서 늘 사실로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다.(시104:24)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 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전8:17).

[1] The Sun as a nuclear reactor: <http://library.thinkquest.org/c001124/gather/ssun.html>, 2006.

[2] Henry, J., The Astronomy Book, pp.40-43, Master Books, Green Forest, 1999.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Answers in Genesis

by Dan Liet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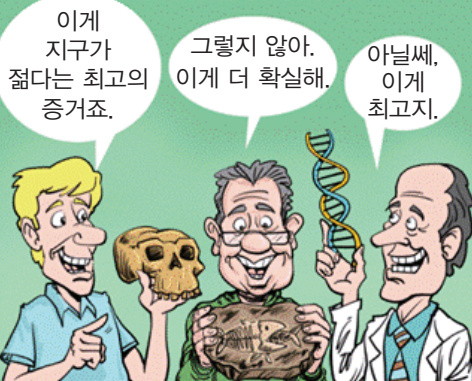
LET THERE BE TRUTH

작품을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려면
그것을 만든 작가의 말을 들어
봐야 가장 확실할 겁니다.



©2012 Answers in Genesis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는 7000년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Exodus 20:11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위자시다!(히6:13)



창조과학탐사

지난 한 달간 아래 단체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했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5/11-14, 담임목사 권준), 아산 제자교회(5/16-21, 심영춘), 안산동산교회(5/21-27, 김인중), ANC 온누리교회(5/23-25, 유진소), 타코마 제일침례교회(6/5-7, 최성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5/28-6/4). 시애틀 형제교회, 안산동산교회, ANC온누리교회, 바이블 칼리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산 제자교회는 첫 참가였는데, 심영춘 담임목사님께서 몇 년 전 참석하시고 교인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는 교회 세미나와 함께 세인트 헬렌산(Mount St. Helens)에서 창조과학탐사를 진행했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는 김선옥 박사님께서 한국어와 영어로 인도해주셨습니다. 각 단체의 상황에 따라 3일에서 길게는 8일간까지 다양한 기간과 경유지를 돌며 진행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의 증거로 가득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진화론 시대에 창조과학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에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편화된 그릇된 세계관을 진리인 성경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이 시대에 독특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진화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조차 진화론에서 파생된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창조과학탐사가 성경을 더욱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도하는 강사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신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능한 창조과학탐사 일정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가능한 날짜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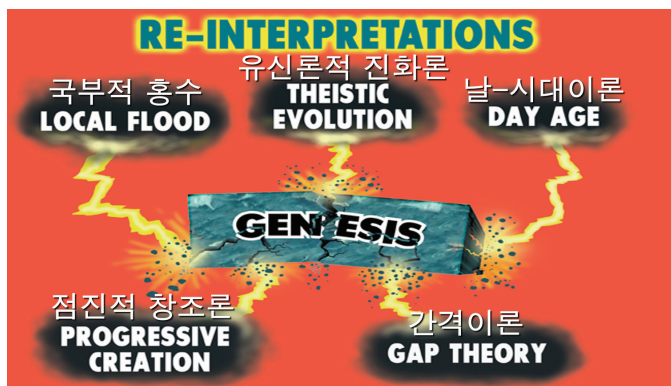


바이블칼리지



ANC 온누리교회

유신론적 진화론의 점검(1) - 개요



최근 창조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다.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무신론적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우종학,

IVP)”라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출판된 것이 주된 이유에서였다.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유럽과 미국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론이 등장해서 교회가 몸살을 앓았던 바, 유신론적 진화론의 등장 배경과 유형, 아울러 한국에서 등장한 비슷한 유형의 것을 함께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유신론적 진화론(theistic evolution)은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는 성경에 진화론을 접목시키려고 시도한 모든 이론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그 내용상으론 진화론과 별 차이가 없다. 단지 시작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한 것이지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진화론으로 설명한 것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진화론의 출현을 먼저 다루는 것이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진화론은 1859년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Origin of Species)”의 초판과 함께 출현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진화론은 단순한 동물에서 인간까지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는 생존경쟁의 역사 속에서 자연선택이나 돌연변이 등의 과정을 통해 지금의 생물들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고등한 동물이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진화론적 사고는 등장하자마자 과학적 검증의 기간을 거치기도 전에 유럽을 휩쓸었으며 빠르게 보편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과학적 사실은 아직까지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생존경쟁, 자연선택, 돌연변이 등이 유전 정보를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화시킨 대진화는 보고

된 바가 없으며, 단지 한 종류 안에서 유전적 재조합을 통한 ‘변이’만이 발생할 뿐이다.

또한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에 1872년 찰스 라이엘(Charles Lyell)에 의해서 소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식으로 진화 순서로 화석을 나열시킨 지질계통표(또는 지질시대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에게 과거의 생물들이 오랜 진화과정을 겪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현대지질학은 이 지질계통이 존재한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구가 수십억 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거쳤다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화석이 지질계통표대로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지구 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이화석도 없으며, 또한 화석이 진화의 순서로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즉 지질계통표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단지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에 대한 신뢰에서 만들어진 창작품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과 지질계통표는 19세기를 넘어 20세기를 거쳐 21세기까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증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진화론과 지질계통표가 지구의 역사라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더 나아가 각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면서 서양은 진화론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도 진화 역사와 상반되는 성경 역사에 대하여 부담감을 넘어 회의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이 진화 역사를 신뢰하는 신학자나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지질계통표와 성경 역사를 함께 엮는 타협이론인 유신론적 진화론을 만들어 발표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진화론의 신뢰에서 등장한 이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의 자세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변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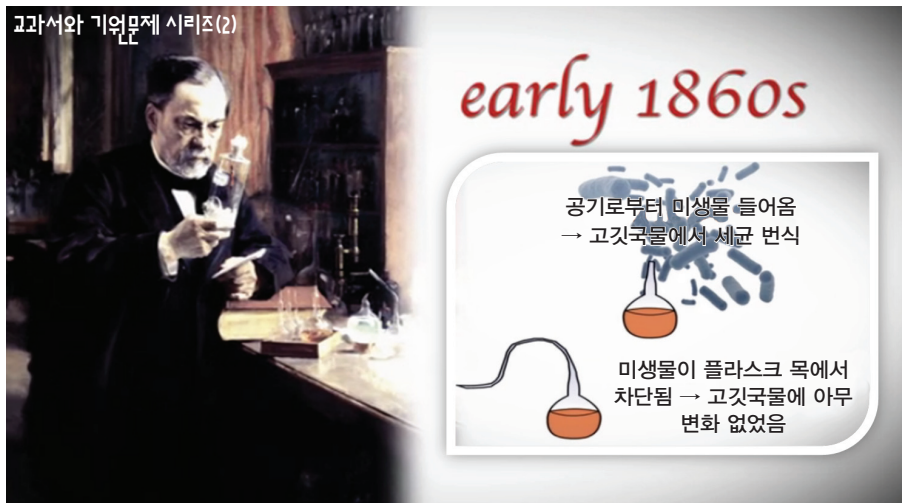
유신론적 진화론이 옳은 발상인가를 점검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를 통해 검증의 도구로 사용해볼 수 있다.

1. 진화론과 지질시대가 과연 확립된 과학인가?
2. 창세기의 창조 순서와 진화 순서가 일치하는가?
3. 그 이론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가?
4. 그 이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가?

앞으로 수 회에 걸쳐 Creation Truth를 통해서 서양 교회에서 등장했던 유신론적 진화론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에 이어서 한국에 등장한 것들을 다루어보기로 한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실험으로 입증된 생물속생설

오늘날 우리는 장기간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 제품들에 익숙하다. 통조림의 보관화는 멸균처리만 잘 하면 음식이 들어있는 용기 내에서 미생물들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지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일부 과학자들조차도 생물이 흙이나 부패한 음식 같은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다고 믿곤 했다.

‘생물이 과연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썩은 고기나 죽은 뱀, 고기 국물 등을 이용한 일련의 실험들이 1600년대 후반에 시작된 이래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약 200년 동안 계속 되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에 관련된 내용을 과학 또는 생물 교과서를 통해 ‘생명의 진화’라는 대단원 안에서 ‘자연 발생설’의 도전이나 ‘생명의 발생에 대한 논쟁’과 같은 소제목으로 배우고 있다.

200년 간의 논쟁은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을까? 우선, 이탈리아의 기생충학자이자 의사였던 레디는 여러 차례 실험과 특히, 1668년에 수행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한 실험을 통해 객관적인 결론을 얻었다. 입구를 천으로 막지 않은 병에서만 구더기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로써 벌레들이 고깃덩이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이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들의 발생이었다. 그 시절 현미경을 개발(1675)한 네덜란드의 레벤후크조차 미생물이 자연 발생한다고 믿을 정도였다. 1745년에는 자연발생설을 지지하는 나이팅과 뷰풍의 실험이, 그 다음에는 이

를 반박하는 스팔란차니의 실험이, 그 후로도 1800년대 중반까지 양측의 논쟁이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팽팽하게 이어졌다.

결국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실험을 한 사람에게 대상을 걸게 되었는데, 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파스퇴르(Louis Pasteur)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공기 속에 있는 미생물이 부패의 원인임을 입증하였고, 현미경으로도 확인하였다. 이로써, 아무리 작은 생물조차도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결론짓게 되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 확고한 사실을 왜 “생물의 진화”라는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대단원의 맨 처음에 생물이 자연 발생되지 않음을 짧게 다루고 나서, 나머지 한 단원 전체에 걸쳐 생물의 자연발생을 전제한 진화론을 공부한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 여기서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 왈드(George Wald)의 말을 들어보자.

이 땅의 생명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가능성 밖에 없다. 창조론과 자연발생설이 그것이다. 그런데 자연발생설은 이미 백여 년 전에(파스퇴르에 의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으므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창조라는 하나의 결론만 남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 이유, 특히 철학적인 이유로 그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 원하며, 그것은 생명이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최초의 생물, 즉 최초의 단세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주를 인정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전제하면서까지 자연발생을 믿는다. 그 믿음이 바로 진화론이다. 유럽은 100년 넘게, 한국은 반세기 넘게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왔다. 실험으로 증명되어서가 아니라, 무신론의 신념(철학적 이유) 때문에 처음 생명이 우연히 발생 되었다는 전제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물속생설은 인류 역사상 실험과 관찰을 통해 부정된 적이 없다. 우리는 객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과학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쉽게 옳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생물은 생물로부터만 나온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결론은 처음에도 당연히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생명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36:9) 우리 자녀들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창조과학 탐사

간증

사이판복음교회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과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셨는지 감이 잘 안 왔고 창조과학을 잘 몰랐었던 저여서 진화론적인 창조 과정을 생각했었는데 ...진화론적인 생각이 온전히 깨지고 없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더욱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슴 벅차고 어서 이 사실들을 모르는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 공성륜 <사이판복음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과 지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조는 보아야 하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고 그것을 다 지으셨고 보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어떻게 보시는지 더 알고 싶어졌고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 김두호 <사이판복음교회>

수능을 마친 큰 아들을 미국 동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여행 보내는 스케줄을 계획하고 있던 차에 접하게 된 창조과학 탐사는 절대로 우연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 모태신앙으로 굳이 창조와 심판의 증거들에 대해 갈급한 적이 없었던 내게도 이 탐사는 과정 하나하나가 마음이 울컥 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 앞으로 다음 세대의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많은 계획에 대해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 강순영 <양재 온누리교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무조건 천지 창조를 믿었지만 과학적 지식 없이 믿었기에 성경을 위해 자녀들에게 거짓 된 교육을 하는 이중적인 믿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자녀와 남편 주위 분들께 성경에 관해 더욱 적극적으로 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윤혜성 <평생교회>

개인 laptop에 창조과학 영상 파일들이 있어도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창조과학 공부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증거들을 통해 강의를 통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실재구나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정확하게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오주안 <사이판복음교회>

예전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제게는 창조에 관한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관련 영상(창조론, 진화론 토론영상)등 많이 찾아보았지만 제 궁금증은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제 신앙의 방향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 동안 강의와 탐사를 통해 확실한(과학적 사유를 통한) 이해와 체계적 믿음이 점차 제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는 신화, 마법 같은 얘기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라는 식의 사고가 완전히 교정되어 창조도 명백한 과학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화론이야말로 근거 부족의 신기루, 즉 사상누각일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김하림 <사이판복음교회>



1/5—7, 2015

누가 물어보면 답변도 할 수 없는 명목상 크리스천이었던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0.01%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자연을 증거 삼아 증인과 함께 우리의 첫 모습, 제일 아름다웠던 모습을 그리며 탐사를 했을 때 내 생각보다 너무나 크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내가 내 인간의 지식으로써 0.01%밖에 알 수 없지만 그렇기에 이런 분이 내 주님, 구원자, 사랑하는 분임이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갑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 심향기 <사이판복음교회>

저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는데 일반 생물학을 교양과목으로 배울 때 생물학 교수님이 신실하게 보이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창조 6일을 그대로 믿지 않고 진화론적 바탕에서 하루를 몇 만년 정도로 해석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이었다는 것을 창탐을 통해 알게 되면서 그 위험성이 심히 심각하며 그리스도인에게 명확하고 뚜렷한 믿음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서 더욱 말씀에 착념해야 됨을 더욱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 나운숙 <사이판복음교회>

저는 교육학 전공하고 있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에 기반된 교육을 제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음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교육 선교사로 스스로를 여기며 '그 날'이 오기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진리'가 다음 세대에 계도 '진리'가 되기까지! - 권정현 <사이판복음교회>

저는 창조과학여행을 할 때 어차피 진화론은 안 믿으니 강의 보다는 그랜드캐니언을 보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보자는 생각으로 이 여행을 왔는데 강의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이 느끼고 가게 됩니다. - 김민균 <은혜한인교회>

믿음으로 받은 성경의 증거를 눈으로 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확무오한 성경을 다시 확정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에 관한 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 알아가며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탐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학정 <LA동부사랑의교회>

창조과학 캠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증인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더욱 공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진리를 더욱 붙잡고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 배성진 <충신감리교회>

"지질시대 표는 '진화론의 증거'가 아니라 그게 진화론이다."라는 말씀 좋았다. - 김반석 <사이판복음교회>

제가 알고 있던 진화론이 그냥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며 성경을 배타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깨달은 만큼 제 학교에 제 친구들에게 진리를, 사실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 이시온 <사이판복음교회>

6/29-7/6 창조과학탐사 (연합팀), 이재만
 7/6-11 창조과학탐사 (Compassion), 이재만
 7/8-10 EM창조과학탐사 (나침반교회), 김선욱
 7/13-19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 교수), 이재만
 7/13-16 EM창조과학탐사 (OMA), 김선욱
 7/22 세리토스장로교회(이재만), CA
 7/23-26 창조과학탐사 (동산고등학교), 이재만
 7/27-8/2 창조과학탐사 (꿈의학교 월드리더스쿨), 이재만

8/3-7 창조과학탐사 (시카고 베들레헴교회), 이재만
 8/8-9 오렌지가나안교회 (이재만), CA
 8/10-12 창조과학탐사 (샌디에고기쁨교회), 이재만
 8/13-15 창조과학탐사 (남가주 남침례회 한인지방회), 이재만
 8/17-21 창조과학탐사 (코너스톤교회), 이재만
 8/23 코너스톤교회 (이재만), CA
 8/24-9/1 창조과학탐사 (안양석수교회), 이재만

9/8-11 창조과학탐사 (은혜빛교회), 이재만
 9/14-17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 이재만
 9/21-24 창조과학탐사 (북가주 목회자), 이재만
 9/25-10/2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10/5-7 빙하시대탐사 (남가주노회), 이재만
 10/8-15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10/17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10/20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CA
 10/24 엘바인벤엘교회 (이재만), CA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